

이준근님의 7월

AI가 당신의 글들을 모아 만든 개인 에세이

24

총 글 수

7월

기간

365

평균 글자

모두가 함께 떠나는 지혜의 여정

이준근의 하루는 유레카의 순간처럼, 욕조에 몸을 담그며 시작된다. 주말의 따뜻한 물은 일주일간 쌓인 피로와 마음의 안정을 부르며, 기억 속 엄마의 자궁 안에서 느꼈던 평화로움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세계와 이질적인 조화를 이루며 그의 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채워진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목욕 시간이 아니라, 창조의 시발점임을 안다.

그의 두 번째 유레카는 또 다른 세상이다. 'AI가 없던 시절,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질문에는 기술과 인간의 공생을 근본적으로 탐구하려는 그의 호기심이 담겨 있다. 이준근은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AI가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보를 통해 고민을 해결하고, 기술 발전의 흐름에 몸을 맡긴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인간의 힘에는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AI로 인해 변화

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질문을 던지며, 그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

한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의 독특한 가치관이 드러난다. 자신만의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과의 유대를 중요시하는 그는 때때로 큰 상금을 나누기보다는 자신이 챙겨주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행복을 꿈꾼다.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지만, 진정한 관계는 울타리 안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이 그를 움직인다.

여행은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미야코지마의 작은 섬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자연과의 조화를 새삼 느끼게 한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치 자신의 인생이 하나의 여행임을 깨닫는다. 떠남에는 항상 설렘과 불안이 공존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깨달음은 그만의 소중한 경험으로 남는다. 돌아오길 원치 않는 여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발을 내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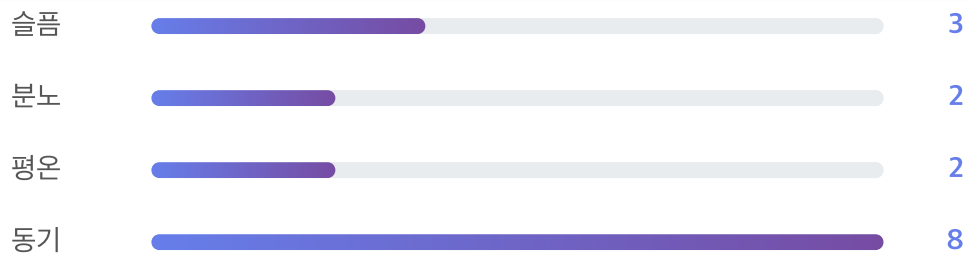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그는 혼자가 아닌 모두와 함께 하고 싶은 꿈을 꾀다. 마치 소나무처럼, 그는 자신만의 도토리를 심고 그것을 키워 숲을 만든다. 그 숲은 블로그와 유튜브, 글쓰기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나마 기여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 된다. 이준근의 작은 다람쥐 같은 영향력이 언젠가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 믿으며, 그는 오늘도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한 발짝 나아간다.

내 글쓰기 스타일 분석

감정 분포

기쁨





문체 특징

호기심 많은

성장 지향적

긍정적인

기술에 관심

여행을 즐기는

평균 글 길이

365자

짧은 문장

68개

긴 문장

47개

개인적 키워드

모두 역시 싶다 함께 있을까 사람 가장 없는

문장 패턴

?

질문형

24개

!

감탄형

5개



대화형

52개



이번 달 작성한 글들

2025. 7. 7.

유레카

주말마다 욕조에 몸을 담그며 한 주를 마무리한다. 옛 중국의 문장가가 말하길, 아이다이가 잘 떠오르는 곳으로 말 위, 침대 위, 변기 위라고 했다. 세 장소 모두 긴장이 풀리...

2025. 7. 7.

너 없었을 땐 어떻게 살았을까?

'GPT가 없었을 땐 어떻게 살았지?'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는 나만의 질문 방법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었을 때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스마트폰이 없었을 땐 진짜...

2025. 7. 8.

인생 역전? 인생 여전?

<오징어게임>이 떠오르고, '게임'을 '성장'으로 바꾸면 국가의 성장과 복지의 비중을 고민하게 하는 주제다. 나라면 큰 상금 독식을 택하겠다. 이유는 '여러사람'들과 '소소하게 ...

2025. 7. 9.

챌린지 속 챌린지

1기에 이어 글쓰기 챌린지 2기도 참석중이다. 지난 1기 때는 스스로 챌린지 속 챌린지를 만들어서 도전했다. 바로 AI점수 100점 달성하기 챌린지였지만 아쉽게 실패했다. ...

2025. 7. 10.

이곳은 나만의 콘서트장

요즘 내 행복의 발화점은 노래부르기다. 원래 코노에서 노래하는 걸 좋아했었지만, 보컬 레슨을 받으면서 주에 3회 정도는 코노에 간다. 레슨을 하다보면 음악이 아니라 음학이 되고...

2025. 7. 11.

간장계란밥에 케찹 넣는다? 안넣는다?

식욕은 있지만 식사가 없는 내게는 너무나 어려운 주제다. 음식이 눈 앞에 있으면 먹는 거고 뭔가를 찾아서 먹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드래곤볼>에 나오는 신선콩...

2025. 7. 12.

한 그루의 나무가 되고 싶다

아무 조건 없이 하루를 쉰다면 나무가 울창한 숲 속 그늘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있고 싶다.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디지털로부터 멀어지고, 걱정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 산...

2025. 7. 13.

습습후후

토요일에 신규 사이드 프로젝트 준비를 하느라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늦은 밤, 문득 밖에 나가서 땀을 흠뻑 흘리고 싶었다. '러닝이나할까?' 사실 3년 전 러닝하다가...

2025. 7. 14.

잠

내가 가장 자주 미뤘던 일은 안타깝게도 '잠'이다. 사무직이지만 가끔씩 있는 지방 출장 때문에 6시간 넘게 운전을 했었고, 휴직 예정인 팀원이 있어서 저녁 회식이 있었다. 더 불어 ...

2025. 7. 14.

MBTI 성격학교

호그와트행 열차를 닮은 기차를 타고 도착한 산 기슭에 학교가 보였다. 정문에 도착하니 내 머리 위에 검고 큰 모자가 올라왔더니 속삭였다. '흠, 이거 완전 내향형이군. 사람 만 날 ...

2025. 7. 15.

최애를 만나러 갑니다.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를 좋아한다. 우리집 벽에 유일하게 걸려있는 그림 하나가 그의 작품 <빛의 제국>이다. 대학생 시절 벨기에 여행을 갔을 때, 마침 근로자의 날 이라 마그...

2025. 7. 16.

구독 트렌드? 오히려좋아.

콘텐츠를 돈 내고 소비하는 구독 트렌드가 자리잡힌 게 참으로 반갑다. 돌이켜보면 과거에는 노래도 소리바다같은 곳에서 다운받거나, 영화같은 영상콘텐츠들은 P2P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

2025. 7. 17.

당신은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군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 가끔 나와는 너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든다. '아, 그렇게 생각할수도있구나? 역시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

2025. 7. 18.

오늘도 쉬는 중입니다

지금 일본 미야코지마라는 작은 섬에 와 있다. 제주도의 1/10 크기인 시골섬이라 사람도 적고, 차도 적은 유유자적한 섬이다. 며칠 지내보니 이렇게 작은 세상에서 평생사는 것도 나...

2025. 7. 20.

내일 뭐할까?

이번 주에 4박 5일 일정으로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 여행을 하면서 가장 의식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을 하는 도중에 내일은 뭘 준비해야할지, 뭘 하면 좋을지 고민하지...

2025. 7. 21.

아, 진짜요?

MBTI가 INTJ인 사람에게 '아, 진짜요?'라는 말을 못하게 하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나 역시 그런 편이다. 특히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저 멘트가...

2025. 7. 22.

30대 은퇴

카피라이터를 꿈꾸다 실패하고 29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첫 직장을 얻었다. 그때부터 콘텐츠 생산에 관심이 있던터라 본업 이외에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부수입이 발생하고 있었기에 ...

2025. 7. 23.

둘 다 싫다...

둘 다 별로지만 굳이 고르자면 전자인 주 3회 1시간씩 야근을 선택하겠다. 회사 근무가 끝나면 스위치가 완벽하게 바뀌는 스타일이다. 회사에서 있었던 업무나 준비해야하는 것들, 회...

2025. 7. 24.

내 도토리로 숲을 만들 수 있다면

1인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세상이 되었다. 나 같은 소시민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 말이다. 나를 동물에 비유하자면 도토리를 땅에 저장해두었다가 나 무로 자라...

2025. 7. 25.

마음 정리

썬 J답게 이번 주말에 뭘 할지는 이미 정해져있다. 전시회 관람, 친구와 프로젝트 미팅, 레슨, 미용실, 본가 방문, 영상 편집까지 틈 나는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모두...

2025. 7. 26.

끝나지 않는 여행

떠남은 언제나 설렘과 불안을 함께 안고 있다. 끼이익. 녹슨 대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28인치 여행용캐리어를 조심하 끌며 대문 밖으로 나갔다. 몇 걸음 내딛지도 못했을 때...

2025. 7. 28.

일잘러는 산으로 가지 않는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업무를 하다보면 업무가 산으로 가는 경험을 하거나, 그런 팀을 본 적이 있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해야하는 목적을...

2025. 7. 29.

혼문 지켜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는 역시 케데헌이다. 전체적인 서사 자체는 평범했지만 가상의 세계에서 끝나지 않고 콘텐츠들이 현실 세계에서 재생산되고 있다. 덕분에 한국에 오는 관광...

2025. 7. 30.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딱 좋아하는 카페는 없는 것 같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해서 자주 가는 게 스벅이긴하다. 스벅에 가면 정말 졸리고 피곤할 때에는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대부분은 자허블을 시킨다. 자...

딜라이팅.AI가 당신의 글들을 분석하여 만든 개인 맞춤형 에세이입니다.

 이준근님의 7월 에세이